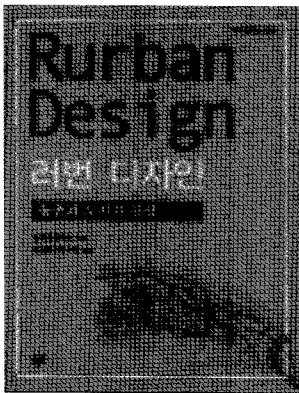


러번 디자인

- 농촌과 도시의 공생 -



[저 자]
일본건축학회

[번 역]
충남발전연구원

[발행처]
주식회사 푸른길

[발행일]
2009. 11. 18.
(총 255쪽)

정 남 수

ruralplan@konju.ac.kr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생물산업공학부 부교수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과 농촌의 도시화에 의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주변 농촌지역에 새로운 주민이 유입되면서 도시적 환경과 농촌적 환경이 혼재하는 지역이 폭넓게 조성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외곽의 개발제한이 풀리면서 농촌의 경관을 간직하고 있던 곳이 공사 현장으로 변하더니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도로 교통이 발달하면서 간선도로를 따라 대형 창고나 공장 따위가 들어서 기존의 농촌마을과는 동떨어진 풍경을 조성하기도 하는 등 혼재 양상이 전국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혼재 양상에 대해 러번(Rurban)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러번이란 루럴(Rural, 농촌의)과 어번(Urban, 도시의)이라는 말의 합성어로 도시적 환경과 농업적 자연환경이 혼재, 도시적 생활자와 농업적 생활자(농업인)의 혼주라는 상황을 나타낸다.

러번 지역은 토지이용의 혼란, 농촌경관의 파괴, 지역커뮤니티의 붕괴 및 신·구 주민 간의 갈등 등 위에서 말한 혼재·혼주에 의한 특유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이나 농촌계획 중 어느 한 분야의 이론만 가지고 러번 지역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욱이 러번 지역을 긍정적인 지역상으로서 새롭게 정립시키고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관련지역 주민, 공무원, 관계 전문가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 새로운 철도(전철) 개통, 대학 유치 등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혼재·혼주화가 우리나라 보다 앞서 진행되었으며, 일찍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층적 연구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화 하였다.

이 책을 지은 일본건축학회에서는 러번 지역에 대한 연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농촌계획위원회가 합동하여 소위원회를 조직하고 러번 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이며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의 러번 지역에서 어떻게 새로 유입된 주민과 기존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해 나가는지, 러번 지역을

어떠한 기법으로 공간 구획을 하고 개발하였는지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 책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러번 지역을 ‘문제 지역’으로만 파악하기보다는 농촌의 풍요로움과 도시의 편리함이 공생하는 새로운 지역상으로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농촌과 도시 환경이 서로 혼재하는 양상을 어떻게 하면 없애 버릴 것인가가 아니라, 그러한 혼재·혼주의 장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였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처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적응하도록 하는 지역 개발이나 계획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대규모 건설·개발 사업으로 인해 공공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되어 줄 것이다.

1장. 러번 디자인의 관점과 검토과제

이 장에서는 경제·산업을 중요시했던 2차 대전 이후의 사회 상황과 생활환경 및 생활의 제반 문제와 함께 최근 수년간의 생활형태와 거주형태의 동향이나 ‘공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혼재·혼주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러번 디자인의 관점을 제시한다.

나아가 그러한 관점에서 추구하는 생활상이나 생활환경상, 러번 디자인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검토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2장. 일본에서의 러번 지역 형성과정과 제 문제

이 장에서는 일본에서 Rural+Urban=Rurban이라는 특성을 가진 지역(러번 지역)은 어떻게 발생하였고, 지금까지 어떠한 경위를 거쳐 온 것일까라는 러번 지역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이러한 사항들을 고찰하고 혼재·혼주에서 공생의 환경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되돌아보며 러번 디자인에 대한 관점을 기술해 놓았다. 또한, 과거에 지속적으로 수도권 개발 압력에 영향을 받아 왔던 지바현의 러번 지역 사례를 통하여 그 현황을 명확히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러번 지역에서의 경관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좋은 경관의 형태나 경관법에 대해서 논하였다.



3장. 러번 지역에서의 계획·디자인 사례

이 장에서는 대도시주변형 1개, 지방도시주변형 4개, 중심지구일체형 3개, 지방도시내형 2개, 대도시내형 1개, 총 11개의 사례들을 소개한다. 사례 소개에서는 지역의 특징은 물론이고 주로 어떻게 환경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는지, 어떠한 활동조직이 만들어졌는지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으나, 새로운 제안 수준인 사례도 있다.

또한 각각의 사례 모두 지역(러번지역)을 어떠한 환경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 디자인 콘셉트적인 것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만, 디자인의 구체적인 방법·기술을 다룬 사례는 적다.

4장. 러번 디자인과 커뮤니티 활동

이 장에서는 러번 디자인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활동이 어떠한 주체에 의해 구성되고 어떠한 이념과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가를 커뮤니티 형태별로 논의하고, 또한 러번 디자인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합의 형성 방법과 인재 육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5장. 러번 디자인에 관한 법과 제도

이 장에서는 러번 디자인에 관한 법과 제도에 대하여 먼저 토지이용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한 후 현행 토지이용법제를 정리하는 가운데 러번 지역에서 혼주·혼재가 생긴 요인을 다루고,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립된 현행 법체계 하의 개발유도시책과 시가화조정구역이 포함된 개발유도시책에 대하여 그 개요와 문제점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가지 사항을 다루면서 러번 지역에서 적용되기 에 바람직한 토지이용제도체계에 대하여 서술한다.

6장. 러번 디자인의 전망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각 장에서 서술한 내용을 돌아보고 제시한 사례들을 통하여 러번 디자인의 관점을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는가를 돌아 본다. 또한 충분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을 제시한 후에, 향후 러번 디자인의 전망과 그것을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체제를 제시한다.